

노출 앞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 농치기 쉬운 바디 관리 꿀팁

기상청의 한반도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평년 대비 평균 기온이 3월은 0.9도, 4월은 0.3도 5월은 1.3도가 상승했다.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아지지만 강수량은 낮아진다는 것. 봄은 사라지고, 여름은 상대적으로 길어진 만큼 여름나기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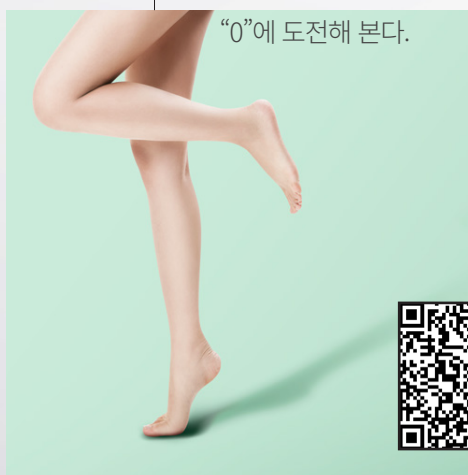


## 노출을 거부하는 내 몸 속 숨은 색소 없애기



팔꿈치는 피지선이 발달되지 않아 건조해지고, 움직임 중에 마찰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질이 두꺼워져 색소침착이 되기 쉽다. 각질관리는 물론 평소에 보습을 철저하게 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갈색의 색소침착이 신경 쓰인다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다. 10분 내외의 간단한 시술로 치료받을 수 있고, 무릎 색소침착 역시 치료가 가능하다. 색소침착 치료의 경우 1주 간격으로 5회 이상 진행한다. 셀프 제모로 생긴 겨드랑이 속 색소침착은 물론 심하게 긁거나 상처로 자국이 남은 색소 역시 **색소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다.

노출을 거부하는 내 몸 속 숨은 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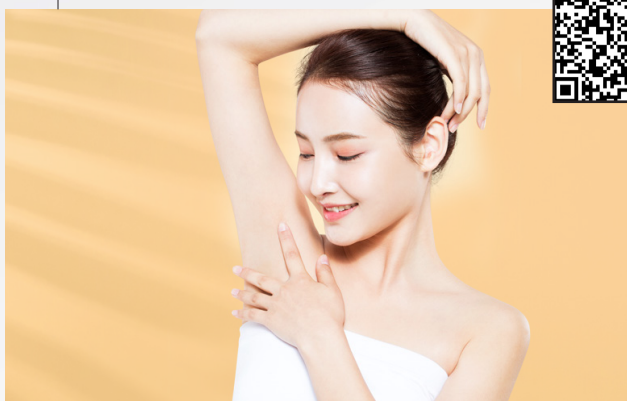


“0”에 도전해 본다.

노출 앞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놓치기 쉬운 바디 관리 정보를 모아 보았다. 여름은 코 앞인데 마음은 바블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자. 봄은 짧다. 그리고 여름은 길다.

## 제대로 제모 관리

제모 시술에 대한 문의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모낭 속 멜라닌 색소를 타겟으로 하여 털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시술 방법인데 시술 부위는 겨드랑이 선호도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인종과 종아리, 팔 순위인데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제모는 이렇듯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제모는 1회 시술로 해결되지 않고 4-6주 간격으로 5회 이상 반복 시술해야 효과적이다. 민소매의 당당함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코밀 인종 제모, 여름이 다가올수록 더욱 신경이 쓰이는 팔과 종아리 제모의 완성도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 제모는 부위별 10-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마취 없이 간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



## 백드림, 가드름, 문제는 자국이다

피지 분비가 많지만 놓치기 쉬운 등, 가슴 여드름 및 자국도 치료할 수 있다. 모공 속에 직접 작용하여 피지의 배출을 돕고 불필요한 각질세포를 제거하는 **클라로 필링**은 검증받은 바디 관리이다. 세포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인산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한번의 시술로 스킨 스케일링 3배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일주일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 처치 없이 시술받을 수 있고 시술 후에도 홍반이나 색소침착의 우려가 없다. 필링의 강도 조절이 가능해 모든 피부에 시술이 가능하고 등이나 가슴에 올라온 화농성 여드름을 빠르게 억제할 뿐 아니라 여드름 염증 후 색소침착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탁월하다.